

# 삼목 방법에 따른 구절초와 금낭화의 발근 효과

강원도농촌진흥원 원예과

고재영 · 이경국

Effect of rooting on cutting methods of *Chrysanthemum zawadskii*  
var. *latilobum* and *Dicentra spectabilis*

Department of horticulture, Kangwon Provincial, R.D.A.  
Jae-Yong Ko and Kyeong-Koog Lee

실험목적 : 자생식물의 개발에 있어 번식법의 확립은 중요하며, 특히 구절초와 금낭화는 종자파종시 개화까지 2년과 3년이 소요되므로 단기간내에 상품생산이 어려운 실정이며 현재는 주로 분주에 의한 방법으로 생산되는 형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삼목에 의해 단기간에 개화할 수 있게 하며 번식기간을 단축하고자 실시하였다.

재료 및 방법 : 금낭화는 삼수 채취후 물에 침지하여 보관하고 채취부위를 엽병, 마디 1마디 2개로 나누어 실시하였으며 발근 촉진제로는 IBA 500, 1,000, 2,000ppm을 침지시간 별로 5, 10, 20, 40초로 하였으며 대비구로 무처리와 투톤 분밀 처리로 실시하였다.

구절초는 삼수채취후 물침지, 건조상태보관, 살균제인 8-hydroxy quinoline (8-HQS) 200ppm과 8-HQS+sucrose 5% 혼합용액에 각각 보관한뒤 1시간과 24시간 후에 삼목하였다.

삼목용토는 버미큐라이트 : 퍼라이트 : 피트모스 4:2:4로 혼합 사용하였으며 관수는 1일 1회 스프레이하여 마르지 않도록 하였고 온실내(20-27℃)에서 관리하였다.

결과 및 고찰 : 구절초는 삼수 보관 방법에 관계없이 무처리에 비해 투톤처리가 발근기간이 약 1일 정도 빨랐으며 삼수채취 1시간후 삼목구에서 발근율은 건조보관후 투톤처리가 92%의 발근율을 나타내 물침지에 비해 약 20% 정도의 효과가 있었으며, 삼수채취후 24시간 보관 후 삼목 역시 건조보관이 28%이고 물침지는 3.6%로 거의 발근되지 않았다. 8-HQS 보관도 16.7%로 다소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것은 물침지의 시간이 경과될수록 잎과 줄기가 갈변되며 급속한 삼수의 노화 또는 균 침투에 의한 도관 막힘 등이 원인이라 사료되나 좀더 자세한 연구가 요망된다.

금낭화는 엽병삼목은 거의 100% 고사되며 마디 2개 삼목이 42.9%로 가장 발근율이 높았으나 발근수는 오히려 마디 1개 삼목이 가장 많았다. 마디 1개의 IBA 처리농도와 시간에 따른 발근율은 IBA 1,000ppm의 20초와 10초 침지가 92%, 7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발근장은 처리간 큰 차이가 없고 발근수는 IBA 2,000ppm의 10초와 20초 처리가 가장 많았다.

결론적으로 구절초는 삼수채취후 건조 보관하고 채취후 바로 투톤 처리하는 방법이 발근율을 높일수 있었으며, 금낭화는 마디 2개를 포함한 삼수의 IBA 1,000ppm 20초 또는 10초 처리가 가장 발근율을 높였다.